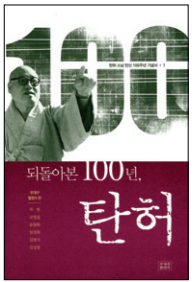


탄허 100년 속 한국불교, 한국불교 속 탄허 100년



되돌아본 100년, 탄허
오대산 월정사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2013년은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책은 한국불교학회와 오대산 월정사가 주관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2012 추계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융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탄허 스님의 화엄선과 원융적인 사상의 틀이 오대산정신에서 연유한다는 기초 위에서 탄허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법당 100재를 짓는 것 보다 스님들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966년 동국역경원 개원식에서 탄허 스님의 개원사다. 단순한 개원사의 의미를 넘어 당신의 일생 전체를 가름하는 문장이다. 탄허 스님은 가장 환경적으로 민족과 애국의 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불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한국과 동양의 비전을 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승, 속의 계몽과 교육에 일생동안 매진했다. 스님은 교육이야말로 불교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시대과제라고 판단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전후의 피폐한 상황에서 1956년 월정사에 '오대산 수도원' 발족을 시작으로 당신의 서원과 원력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역경'이었다.

그때까지의 불교교재들이 모두 한문으로만 되어 있음이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한 스님은 모든 교재를 현토하고 번역하는 대업에 시동을 건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불교 역경사에 한 획을 긋는다. 스님은 화엄경과 관련된 방대한 저술을 집대성하고 번역하여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등 한국불교 역경사에 가장 큰 불사를 이룩했다. 이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개인이 행한 역경불사로는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바로 탄허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사 최고의 학승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데에만 17년을 몰두했을 만큼 사회 통합의 해결책으로 화엄사상을 강조했다. 책에서는 이처럼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의 일원이자 유불선을 통달한 스님의 삶과 시대정신을 재조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탄허'의 업적은 '한암'의 그늘에서 잉태되고 발현됐다. '한암' 없이 '탄허'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 없고, '탄허' 없이 '한암'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다. 숲이 울창하면 나무가 묘(妙)하고, 꽃이 굽이치면 신룡의 자취가 어리는 법. 약관의 탄허는 암울한 시대속의 실존적인 방향을 당대의 최

고 선지식인 한암 스님에게 의탁한다. 22세의 탄허는 3년에 걸친 스승과의 문답 끝에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한다.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법통을 계승하여 <신화엄경합론>을 비롯한 70 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역경하고 주석하여 현대 한국불교 교육의 토대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유 불 도 3교를 화통하는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종교해석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종교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1장에서는 탄허 사상의 배경이 되는 오대산의 특질과 관련된 '오대산 문수화엄 신앙의 특수성 고찰'을 다루었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자장 스님에 의한 오대산 개창과, 신라하대의 확립되는 화엄을 바탕으로 하는 원융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는 탄허 스님의 동양학적 화통정신이오대산에 깃들 수 있는 한 이유를 납득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이를 통해서 탄허 스님의 용·복합

2012 관련 발표논문 엮어
"법당 100재 짓는 것 보다 스님들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해"
탄허의 삶으로 본 한국 근현대불교

적인 관점이, 오대산 본래정신과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제2장은 제1장 주제의 바탕적인 부분을 기초로 한 '탄허 태성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다. 탄허 스님의 한국불교사적 위치에 대해 모색했다.

제3장은 탄허 스님의 사승(師承)적인 관점에서의 사상 고찰이다. '한암과 탄허의 동이(同異)적 고찰'이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차이를 '선적인 교'와 '교적인 선'으로 파악하고, 양자가 일관하는 지논선의 양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은 스승과 제자임에도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진 선지식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리는 오대산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4장은 탄허 스님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화엄과 관련된 것으로, '탄허 태성의 화엄사상'이다. 탄허 스님은 화엄에 대한 기존 한국불교의 일반적인 청량정관(淸涼澄觀)의 계통과는 다른 이통현의 설을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5장은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이다. 탄허 스님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간 선각자라는 점에서, 스님에게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중층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6장은 탄허 스님의 예언 및 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탄허 스님의 예지, 그 배경과 의의'다. 예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본질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aniholo@hyunbul.com



선지식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더라
법보신문·월간 불광 공동 기획
불광출판사 펴냄
1만2천원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것 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음이 하는 것들로서 사랑, 미움, 후회, 희망, 절망 등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책은 그 중 하나인 '위로'에 관한 것이다. 말씀 그대로가 위로가 되는 열여덟 편의 선지식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이다.

책은 2012년~2013년 법보신문에 연재되었던 '명법문 명강의'와 월간 <불광>에 연재되었던 '살아있는 명법문' 중에서 가려 뽑아 엮은 것으로, '기억에 남는 명법문' 시리즈의 네 번째다.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덕속총림 수덕사 방장 설경 스님, 도심 포

교에 진력하는 정우 스님, 사회 운동에 앞장서는 도법 스님, 한국 최초 다문화 사찰 명라사 주지를 지낸 무원 스님, 청안 스님,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등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이다.

"여러분,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배우려면 컴퓨터를 연습해야 하고, 골프를 치려면 골프 연습을 해야 하듯이 행복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선지식의 어법엔 늘 위로가 있다. 힘든 대중을 향한 위로. 그것이 다름 아닌 '법문'이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의 법문 속 메시지는 '행복한 삶'으로 요약된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국 스님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긴다며, 행복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지홍 스님은 허망한 탐욕과 사건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설한다. "그것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진리에 눈을 떠야 하고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

달아야 합니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선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해 그릇된 집착이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지유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면 새로운 내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할 때 사랑분별이 떨어진다고 답한다. 옛 스님과 선사 이야기를 인용하여 사랑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답한다. 행복과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속에 있지 않을까? 일운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반문해 보길 권한다. '현재,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 나를 쫓아다니는 그림자가 싫어 달려도 보고, 쫓겨도 알아도 보고, 누워 있지는 않은지...' 도망치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를 사라갈 수 있다.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도 다음날로 미루거나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일운 스님 말씀처럼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자신의 전부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박재원 기자

유학자 아닌 시인 주자의 시 정수 100선

주자시 100선

주희 지음 | 장재후 옮김 | 연암서가 펴냄 | 1만5천원



"반 이랑 모란 연못에 거울 하나 열렸는데 /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돌아다니네 / 물 노니 어찌서 그렇게 맑을 수 있는가 하니 / 맑은 물 흘러나오는 근원 있어서라 하네"

책을 읽으려고 펼쳤다. 마치 그리 크지 않은 네모반듯한 연

못이 거울을 열어 사물을 비추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 책을 읽다보니 거울이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를 투영한다. 그 모습이 함께 어울려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내용이 풍부하기 그지없다. 책에게 물어본다. "어찌하여 그렇게 맑은 내용을 항상 담고 있을 수 있는가?"하고, 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 "그거야 연못에 항상 쉬지 않고 흘러드는 맑은 물이 오래도록 고여 썩은 물이 없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내용을 담은 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이다. 책은 훈고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학을 성리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자의 시 100선을 소개한다.

주자는 문사철에 두루 능한 학자였는데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 곧 유학자로서만 부각된 인물이다. 요즘 들어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를 문학사에서 비중 있게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자는 문학 방면에도 두루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자는 여러 방면의 시, 이를테면 경치를 읊은 것, 마음 속을 읊어낸 것, 서사 영물시 등에 두루 많은 시를 지어 남겼다. 그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설리시(說理詩)이다.

당시의 많은 유학자들이 설리시를 지었지만 주자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서 병풍이나 액자, 족자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관서유감(觀書有感)'이나 '춘일(春日)' 같은 시는 바로 이 방면의 최고 걸작이다. 책에는 최근까지 발굴된 주자가 지은 시 1,500여 수 중에서 일반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작품 100수를 가려 뽑아 수록하여 우리말로 옮기고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았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6 ~ 2/1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대불교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맑은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영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샘터
5	깨달음	법륜	정토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현수	공경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목 허자	이침당
9	지금 당장(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도법	다산초당
10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더라	지유 외 17인	불광출판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0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불과 이론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출판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김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중섭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15쪽 | 값25,000원